

# 김 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 9월 소통의 날 맞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준비 철저 당부·혁신도정상 시상·청렴 라이브 교육 등 진행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내달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등 현안업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9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혁신도정상 시상 및 청렴 라이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이제 한달여 남았다. 각 부서별로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큰 압박감과 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작년 새만금갯벌리도 인한 불명예를 깨끗하게 벗어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전북에 오니까 좋다. 새로운 인사이트와 미래 사업기회가 주어지는 이렇게 좋은 데를 왜 그동안 안 왔을까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대회를 맞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특별히 갑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0일 열린 9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직접 샌드아트를 통해 '정렴 전북, 함께 성공! 파이팅'이라는 청렴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질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갑질이 일의 능률과 효율을 떨어뜨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간부회의 때도 수 차례 지속적으로 갑질에 관한 문제를 제

기하고 방지하기 위해 간부들이 술선 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청렴 라이브 교육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청렴 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기관 대

상 청렴 교육 과정으로 샌드 아트 퍼포먼스, 청렴 연극, 청렴 특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은선 작가가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샌드 아트로 구현했으며,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샌드 아트를 통해 '정렴 전북, 함께 성공! 파이팅!!!'이라는 청렴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청렴 연극은 갑질과 이해충돌의 내용을 코믹한 상황극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청렴 특강은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김효순 변호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청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에 자연재난과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2개 부서, 우수상은 전북콘텐츠통합진흥원, 주택건축과, 고령친화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에 각각 수여됐다. /이만호 기자

# 도, 제1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위촉식

### SNS로 전북 매력 세계에 홍보... 11개국 유학생 활동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제1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SNS 활용도가 높은 유학생들 중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개인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도내 대학 생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서포터즈들은 전북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공유해 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CEO 시그니처 강의, 기업 전시 및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며, 10월 25일 전주기전대학이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에



도 참가해 유학생들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질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를 체험하며, 12월에는 농촌진흥청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전북의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을 탐방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포터즈가 전북의 주요 기관과 기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전북의 경제적, 문화적 매력을 외국인 유학생의 시각에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도내상품 중국 판로 개척 '활발'

**코트라·중진공GBC 등 수행사 활용 도내제품 판매 확대  
충청 국제 소비재 박람회·우한 한국상품 판촉전 참여 등**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가 전북100선관 제품과 진안홍삼 등 전북상품으로 중국 주요도시 공략에 나섰다.

중국사무소는 지난 20일 전북100선관에서 선별한 한지양말, 넥타이, 스카프 제품과 진안홍삼 등을 상하이와 칭다오시, 충칭시 등에서 각각 전시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사무소는 기존사업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코트라와 중진공GBC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전북상품의 전시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과 함께 중국 주요 도시에서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사무소는 전북상품판매가 투명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중진공 GBC 등의 수행사들을 적극 활용해 중국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기존에 진출해 있던 전북제품과 함께 전북100선관에서 선별한 제품은 상하이와 칭다오, 충칭 중진공 GBC를 통해 처음으로 상시전시에 나선다.

또 중국사무소는 그동안 서부시장을 공략했던 진안홍삼과 가비트리, 바이오 푸드스토리, 수려메디, 대성메디칼, 바이오오텐, 해오담 등을 상하이와 칭다오의 화동지역과 우한을 중심으로 한 내륙시장도 집중 공략한다.

특히 진안홍삼과 한지 제품은 상하이 중진공 GBC 수행사인 비바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중국사무소는 상하이 중진공 GBC 수행사인 비바업체 이지원 대표에게 지난 8월 진안홍삼센터와 전북100선관, 교통아트센터, 순창 가비트리 등 전북제품 현장을 방문토록 했으며, 이에 비바업체는 최근 상하이 중진공 GBC의 협조를 받아 직접판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중국사무소는 전북상품 판매와 병행해 이날 충청 중진공이 주관하는 충청 국제소비재박람회에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18일 코트라 주관 우한 한국상품판촉전 참여해 전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우한 한국상품판촉전은 12월 후배 이상 최대 오프라인 유통채널인 '우상'을 통해 참고형 마트 입점도 타진하게 된다.

송승훈 중국사무소장은 "중국사무소에서 꾸준히 진행해 왔던 사업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외국인 정착 지원 인프라 강화

### 외국인 도정 모니터링단 발족·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느끼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찾아가는 현장 상담 등 외국인들의 정착 정착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

난 9월 1일 발대된 모니터링단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정착 지원을 돕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통합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제안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9월부터 주말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운전면허, 직무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도서관, 산업단지 내 회의실 등을 활용하고 보조강사로 도내 유학생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 노무·행정 금융 전문 상담 등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의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전북사랑키트 제공, △법률·노무 등의 전문가 및 찾아가는 현장 상담, △행정기관 통번역 서비스 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 지역 역사 배우기, △외국인 인식개선 홍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군산시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 검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

전북자치도는 지난 19일 군산시 옥구읍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항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류류 예방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 출입 통제, 해당 지역 내 가금 농가 예방·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도는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14일간 소독강화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위험시기로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조류인

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